

"보여줄게 달라진 나의 삶!"

2022 e나라도움
체험수기 모음집



"보여줄게 달라진 나의 삶!"

2022 e나라도움

체험수기 모음집





Contents

| | | |
|---|---|----|
| | 발간사 | 7 |
|  1 | 대상 이정아 (대전보훈병원) 존엄한 생애 말기 지원사업 "너도 할 수 있어! e나라도움" | 11 |
|  2 | 최우수상 유동훈 (개인) 장애를 딛고 어린 시절 꿈을 찾게 해준 e나라도움 | 17 |
|  3 | 최우수상 진창현 (분당서울대병원)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관리 업무의 베테랑이 되다 | 25 |
|  4 | 우수상 정극민 (㈜블랙앵커) K-Game의 새 지도를 그리는 그날까지 | 33 |
|  5 | 우수상 황민구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 처음 접한 e나라, 든든한 e나라 | 41 |
|  6 | 우수상 최소영 (경성대학교) 마동석 같은 e나라도움 | 47 |

발간사

2016년 설립된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화 플랫폼인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dBrain+),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 등 중앙정부 주요 재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정보 분석을 통해 재정정책의 수립과 운용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e나라도움은 올해로 개통 7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부는 2017년 보조금 개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e나라도움을 도입하였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나라도움과 국고보조금 통합예탁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고, 보조금 전 과정을 시스템화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자체 공무원, 교육청·학교, 공공·민간 사용자들에 게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e나라도움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소중히 귀담아 들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22년 e나라도움 체험수기 모음집은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변화된 삶의 모습과 e나라도움을 사용하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례를 공유하여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나라도움 사용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와 청렴함을 더하여, 보다 따뜻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3월

한국재정정보원장 박 용 주

01

대상

이정아 (대전보훈병원)

존엄한 생애 말기 지원사업 “너도 할 수 있어! e나라도움”







존엄한 생애말기 지원사업 “너도 할 수 있어~! e나라도움”

대상 : 이정아 (대전보훈병원)

1. 새로운 업무도 힘든데..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까지?

2021년 5월 호스피스사업실로 갑작스런 발령을 받게 되었다. 코디네이터로 입원형 호스피스 국고보조금을 집행해야 했다. 전임자에게 처음 들어본 e나라도움.. 뭐지? 호스피스전문기관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는데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처리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e나라도움이란다. 국고보조금이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하고, 절차에 맞게 잘 써야한다고 했다. 모르는 용어들에 덜컥 겁부터 났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은 방문을 주로 나가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바로 물어볼 수 없어 어떻게 업무를 해나갈지 무척 당황스럽고 난감했다.

2. 나에게 한줄기 빛과도 같은 e나라도움 고객센터

국고카드 사용은 어디서? 전자계산서 사용은 어디서? 사이트 상단에 매뉴얼을 클릭하여 내가 처리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 찬찬히 읽어보며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의문이 들면 즉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초보자임을 밝히고 어려운 점에 대해 상담했고, 그럼에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원격을 사용해 직접 해결도 해주셨다. 너무 친절하게 응대해주시며 찬찬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알려주셨다. 고객

센터 직원분이 글로 보는 매뉴얼이 어렵다면 동영상 매뉴얼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조언을 듣고 나는 보조사업자 정산관리 업무 흐름부터 동영상 매뉴얼을 통해 공부하였다. e나라도움이 어떤 절차로 교부, 집행, 정산이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너무 쉽게 이해가 되었고 추후에 해야 하는 업무도 이제 두렵지 않게 되었다. 그야말로 나에게서는 한줄기 빛과도 같은 e나라도움 고객센터였다.

3. 너도 할 수 있어~!! e나라도움^^

우리 호스피스 사업실에 신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들어왔다. 신규 직원은 국고보조금 집행 처리 등 e나라도움 시스템이 처음이라 너무 어렵다고 했다. 나는 활짝 웃으며 신규 직원에게 말했다.

“너도 할 수 있어!! e나라도움^^”

우선 동영상 매뉴얼을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씩 보며 연습해보길 추천해줬다. 2개월이 지난 신규 직원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e나라도움 시스템 처리를 척척 해나가고 있다. 타부서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이 처음이라며 호스피스는 국고보조금 처리를 많이 하고 있으니 좀 알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1년도 되지 않은 내가 직접 타 부서에 방문하여 집행, 정산 등 e나라도움 시스템 업무처리를 도와주었다.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e나라도움 ^^”

4. e나라도움의 존엄한 생애말기 지원사업

“덕분에 너무 고맙습니다.”

호스피스 국고보조금은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존엄한 생애 말기 지원사업에 쓰여진다. 이렇게 중요한 호스피스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번 년도부터 호스피스 병동 환자를 위한 임종 돌봄 키트 제작과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정서

적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근조화환 지원 서비스 「국화꽃 향기」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쉽게 국고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준 e나라도움 덕분에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해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뿌듯하다.



〈임종돌봄 키트 제작〉



〈근조화환 지원 서비스〉

5.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며... 내 꿈은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처음에 부담스러웠던 업무가 이젠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며 나의 꿈이 되어갔다.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존엄한 생애말기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가 내 마음 한 곳에 단단히 자리 잡게 되었다.

고맙습니다. e나라도움^^

나에게 새로운 꿈과 방향성을 찾아주어서.

이제 나의 꿈은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다.



02

최우수상
유동훈 (개인)

장애를 딛고 어린 시절 꿈을
찾게 해준 e나라도움







장애를 딛고 어린 시절 꿈을 찾게 해준 e나라도움

최우수상 : 유동훈 (개인)

저는 어린시절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텅빈 집에서 혼자 자라 왔습니다. 당시 살고 있던 부천시에는 부천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되어, 시에 음악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고 저 또한 시의 공교육을 통해 바이올린을 배우고 음악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80~90년대초 호경기로 인한 저가약기로 바이올린을 배우던 어린시절〉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악기를 배우고 있었지만 재능을 인정받아 전공을 권유 받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오래다니던 회사를 실직하시는 바람에 바이올린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뒤 IMF사태는 저희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02. 최우수상 - 장애를 딛고 어린 시절 꿈을 찾게 해준 e나라도움



결국 음악에 대한 꿈을 포기 하고 가진 것 없는 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 중고교 시절 권투선수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으로 인하여 한국권투계도 어려워 졌고 저는 머리에 후유증만을 남긴 채 권투를 그만두고 건설현장과 같은 곳에서 육체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땡벌에서 자주 일하며 열사병 증상을 겪게 되었고 권투 하던 시절의 머리 후유증이 겹쳐 저의 건강을 발목 잡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국 머리에 문제가 생겨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느 정도 재활이 잘 되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취업이라든지 사회생활의 진입에는 일반인들 보다 불리한 점이 존재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이 불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어린 시절 꿈인 음악을 다시 제대로 시작해보자 하여, 어려운 몸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며 음대와 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 바이올린 비올라 연주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불리한 몸과 늦게 시작하여 좋은 학교출신도 아니어서 안정적인 시립이나 도립 교향악단을 들어가진 못하였지만 여기저기 연주만 있으면 지방공연 등 열악한 무대라도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입도 부족하고 불안한 상태였지만 음악에 대한 꿈으로 인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뮤지컬배우 최정원씨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던 중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공연은 취소가 되어버렸고 공연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저 또한 모든 연주활동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예술분야 공모사업 같은 것을 알게 되었고, 문체부 산하기관의 예술 공모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모사업을 시작하려 보니, 중고교 시절 권투선수준비를 하느라 제대로 공부도 못하여 아는 것도 없고 사회 나와서도 건설현장 육체 노동만을 하여 세상에 대한 지식도 없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저는 컴퓨터도 잘 하지 못하고 행정에 대해서도 잘 몰라 공모사업에 합격해 놓고서도 매우 불안하였습니다.

그러나 e나라도움은 그런 저에게 오히려 심적 안정이 되주었습니다. 유튜브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의 사용법을 자세하게 보고 들을 수 있었으며, 간혹 이해 안되는 점이 있으면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해주셔서 공모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저는 행정 업무 등으로 어딘가를 많이 돌아 다니는 것이 부담이 되었지만 e나라도움 시스템은 저에게 정말 완벽 그 자체 였습니다. 공모 신청, 사업등록, 집행등록, 이체 등의 업무를 집에서 손쉽게 편하게 처리 할 수 있어, 일에만 집중하여 예술 공모사업을 통해 음악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나라도움을 통해 바로바로 이체를 할 수 있는 점도 너무 편하였고 증빙서류도 바로바로 등록 할 수 있는 점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너무나 구세주와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력이 중단된 다른 음악인들과는 달리,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사업 진행으로 경력중단은 커녕 남들이 이뤄내지 못한 성과와 포트폴리오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코로나 시기 이전, 남들보다 불리한 출신과 장애로 인하여 힘들게 예술 활동을 하였지만 오히려 역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e나라도움과 함께 한 공모사업의 경력으로 인해 코로나 기간 한국음악협회의 예술인 인력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발판이 되기도 하였으며, 중단되지 않은 경력과 성과로 UN국제 음악제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시절 음악의 꿈이 결국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인하여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2021년 저는 더 큰 공모사업인 국제교류지원 사업에 도전을 하였고 전년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제교류지원 사업 또한 e나라도움을 통하여 진행하였는데 전년대비 늘어난 예산과 규모로 인하여 힘들 뿐 하였으나 전년에 비해 더 사용이 손쉬워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인하여 공모사업에만 집중하여 교부신청 부터 정산까지 마음 놓고 편하게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e나라도움시스템과 함께 하면서 지속적인 음악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불리한 요건 속에서 매우 큰 힘이되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올해도 국제교류지원 사업을 e나라도움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상향된 지원금으로 우크라이나 연주자와 러시아 연주자를 초청하여 화해와 평화의 교류사업인 정동 국제 음악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참신한 기획이라 평가 받아 각계각층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e나라도움시스템이 없었다면 장애인의 몸으로 이런 큰 예술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나라도움을 통해 각 분야의 재능있는 많은 개인이나 단체가 발굴되어 더 많은 결실을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소망해 봅니다.



〈'22년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한 국제교류지원사업 -
현직 아나운서 및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의 참여로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03

최우수상

진창현 (분당서울대병원)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관리 업무의 베테랑이 되다**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관리 업무의 베테랑이 되다

최우수상 : 진창현 (분당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입사한 2018년 12월부터 국가연구과제 관리 담당자를 맡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기존에 다른 병원에서 약 4년 여간 병원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지만 국가연구과제 관리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여러 국가과제 관리 사이트(통합이지바로, 통합RCMS 등)가 있지만, 특히 'e나라도움'은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다. 사이트 명 자체가 '나라'라는 단어가 붙어있고, 국가기관 사이트라서 그런지 부담감도 크고 업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어찌지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섰기 때문이다.

'e나라도움'에서 과제별로 사업비를 실시간으로 이체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사업변경 신청도 해야 했다. 이처럼 처음 접해 본 사이트는 나에게 모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만 했다. 그래서 처음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과제 관리 업무를 받았을 때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해당 사업을 온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스러운 마음이 컸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업무를 수행해 온 병원 경력자로서 이왕 부딪힐 것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죽고자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되새기며 'e나라도움'과 친해지고 업무를 숙달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다.

국책과제 담당자로서 'e나라도움'을 사용하여 관리해야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2021년도에는 총 13개 과제를 관리했다. 여러 과제 중에서도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도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사업'에 대한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협약체결부터 연구비 집행, 정산까지 상당히 고되고 힘들었지만, 불인정 없이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사업별로 업무 진행 순서를 파악하고 난 뒤, 'e나라도움'에 깔끔하게 업로드 되어있는 매뉴얼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따라했다. 협약체결부터 교부신청, 연구비 집행등록, 집행정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마무리하고 나니, 과제 종료 시점에는 처음 e나라도움을 접했을 때보다 스스로 성장한 것을 느끼고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이 임상분야가 전문인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초반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사업 관리가 처음인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사업비 집행에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고 협조하며, 과제 정산까지 마무리 지었다. 과제 종료 후 그분들께 “고생 많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마음 고생했던 순간들의 기억은 어느새 눈 녹은 듯이 사라지고 뿌듯하고 기쁜 마음만 남게 되었다. 국고보조금이라는 소중한 나라의 예산이 나로 인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문제없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국책과제 담당자에게 상당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줄만한 중요한 경험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4년 여간 'e나라도움'을 사용하면서 느끼거나 깨달은 바에 대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e나라도움'을 처음 사용할 때의 꿀팁(활용팁)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시작이 반이다 : 사업수행관리 알차게 활용하기

모든 사업관리의 시작은 사업수행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업신청부터, 사업이 선정된 후 사업등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교부신청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처음에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고생했는데 매뉴얼을 읽으면서 실제 사례를 경험해보니 빠르게 이해하기가 쉬웠다. 다른 과제를 진행할 때 기존의 어려운 점이나 헛갈렸던 점을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했더니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과제 담당자 분과도 좀 더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e나라도움' 화면에서 사업등록 탭을 클릭해서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업비 예산 등을 상세히 입력하고 사업등록을 하면 사업담당자가 확인 후 완료 처리된다. 그 이후 사업등록현황 탭에서 해당 사업 진행 상태를 클릭하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더욱 연구비 예산 실적현황을 파악하기 편리하다. 특히 사업등록현황에서 사업수행확인서 출력 및 재원 상세까지 파악이 가능해서 과제 정보를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사업등록진행상세 | | | | | |
|------------|---------------------|-----|---------|-----------|------|
| ● 사업등록진행목록 | | | | | |
| 순번 | 처리일시 | 처리자 | 진행상태 | 비예치승인진행상태 | 진행사항 |
| 1 | 2022-10-21 15:45:49 | | 확정 | | |
| 2 | 2022-10-21 15:43:25 | | 사업변경신청중 | | |
| 3 | 2022-10-13 07:48:29 | | 확정 | | |
| 4 | 2022-09-23 10:35:45 | | 사업변경신청중 | | |
| 5 | 2022-09-23 10:35:36 | | 확정 | | |
| 6 | 2022-09-23 10:35:22 | | 사업변경신청중 | | |

사업등록은 해당 과제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는 첫 단추를 꿰는 업무와도 같기 때문에 더욱 유심히 살펴보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혹시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e나라도움' 고객센터와 해당 사업 담당자 분께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나 친절한 설명과 함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2.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 : 집행관리 알차게 활용하기

사업등록이 완료되고 e나라도움 예약계좌에 사업비가 입금이 되면 드디어 사업 관련한 비용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제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해야하는데, 실제 사업비가 'e나라도움'에서 집행 등록한 내역대로 실시간 이체가 된다. 그래서 이체 실행하는 순간까지 정말 너무나도 떨리고 긴장이 된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진정한 'e나라도움' 전문가가 될 수 있기에 화면 옆에 매뉴얼을 켜놓고 신중히 비목, 금액, 거래처, 계좌번호 등을 하나하나씩 입력하면 된다. e나라도움 화면은 타 국가과제 연구관리 화면에 비해 인터페이스가 좀 더 직관적이고 사용자가 입력하기 쉽게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편리함을 더 느낄 수 있다.

집행정보 초기 등록화면부터 입력하고자 하는 집행 건을 좀 더 수월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증빙우선으로 할지 세목우선으로 할지 정해서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된다. 해당 화면에서 금액부터 증빙자료까지 입력한 후 집행정보 등록 완료하여 이체를 요청하면 처리가 된다. 사업비 집행은 사업관리의 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집행등록 전까지 꼼꼼한 검토는 필수이다. 집행등록 후 집행내역 조회에 들어가면 작성일자/거래처/용도/증빙자료/등록자 등 다양한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수월하게 과제를 관리할 수 있다.



3. 결자해지 (마무리까지 야무지게 끝내기) : 정산관리 알차게 활용하기

사업비는 집행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점검, 정산까지 마무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해당 사업을 완벽하게 종료할 수 있다. 따라서 정산까지 꼼꼼하게 신경 씬으로써 문제없이 원활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상시점검 탭에서 대상 사업이나 문제가 있는 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완처리를 진행할 수 있고, 정산관리 탭에서 정산내역에 대한 소명요청이 있을 시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재정산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종 정산 마감 후 반납까지 완료하면 드디어 담당 사업이 완벽히 마무리 되는 것이다. 'e나라도움'에서 이 화면을 보기까지 거쳐 온 일련의 과정과 인고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이렇게 사업등록부터 정산관리까지 유기적인 흐름을 따라 'e나라도움'을 사용한지 4년 여 정도 된 것 같다. 처음에 'e나라도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더불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도움

을 청하거나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았다. 'e나라도움'과 친해지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사이트에 점점 익숙해지고 나서야 점차 자신감이 붙었다. 고객센터 담당자 분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시시때때로 이것저것 모르는 것을 물어보았고, 항상 친구처럼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다. 나 역시 타 기관이나 다른 직원 분들이 'e나라도움' 사용과 관련하여 물어보시면, 내가 'e나라도움'에서 도움을 받은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고 항상 노력할 것이다. 이제 'e나라도움'은 내게 업무 관련 사이트 이상의 든든한 디딤돌이자 항상 즐겨 찾는 친숙한 존재가 된 것 같다. 지금도 e나라도움에 접속하여 자연스럽게 2022년도 사업 선택 후 주저 없이 이체 버튼으로 가는 내 마우스 움직임을 보면 한편으론 나 스스로 기특하고 대견스러운 마음이 든다. 이렇게 지금까지 'e나라도움' 활용법에 대해 조심스럽게 작성한 나의 글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나의 진심이 잘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모든 국책과제 담당자 분들 파이팅!

04

우수상
정극민 ((주)블랙앵커)

K-Game의 새 지도를 그리는 그날까지







K-Game의 새 지도를 그리는 그날까지

우수상 : 정극민 ((주)블랙앵커)

<글로벌 NO.1 인디 게임 벤처 기업>을 꿈꾸다

지난 10여년간 게임 개발을 함께 동고동락해온 세 명의 게임쟁이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만든 전 작에서도 상업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진성으로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로 뭉쳤습니다. '진짜'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북미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인디게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게임들이 있지만, 비디오 게임의 본거지, 가장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북미/유럽 시장에서는 성공을 거둔 예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독특한 기획력과 탁월한 게임성을 바탕으로 한 <인디게임>의 경우 북미 유럽시장에서는 꽤 규모 있는 제작사들이 생겨났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게임이 이제 하나, 둘 나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게임을 좋아하는 진성 게임쟁이들이, 유니크한 게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디게임을 만들어 세계에 이름을 떨칠 제작사가 될 수 있을까? 이제 막 꿈만 꾸는 우리들에게 언감생심, 글로벌 NO.1 인디게임 스튜디오가 되겠다는 말이 가당하기나 한 것일까요? 무모하게도 저희는 저질러 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두 개의 글로벌 게임작을 만들어낸 경험으로,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인디게임 초기 제작시절 -보드게임 프로토타이핑〉

글로벌 K-인디게임을 위한 항해, 첫 순풍이 되어준 국고보조금

라면만 먹고 개발했다는 지난 세대 벤처 창업자들의 말처럼 저희 창립 멤버 3명은 반지하 사무실에서 매일 같이 북미/유럽에서 인기 있는 PC(STEAM)게임들을 분석하고 같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면서 게임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PD, 프로그래머, 게임디자이너 3명에서 시장에 선보일 만한 게임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게임 아트, 사운드, 내러티브 디자인 등 어떻게 같이할 멤버를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여 지원하였고,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립멤버 외 처음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금이었습니다. 〈북미 유럽시장에서 통하는 인디게임〉이라는 포부를 함께 할 수 있는 멤버들을 엄중히 선발하여, 한 명 한 명 모아 팀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IT 구인난이 매우 심각했던 2020년~2022년 〈청년창업사관학교〉지원금, 충남글로벌게임센터의 〈게임제작지원〉지원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초기게임개발사 성장지원〉이 발판이 되어 소중한 팀원들을 모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북미 시장으

로 나아가는 작은 돛단배에 첫 순풍이 불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7명, 2021년에는 9명, 그리고 2022년에는 벌써 14명이 함께 하는 인디게임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회사다운 회사의 모습으로 하나씩 항해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첫 순풍이라 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시작이었는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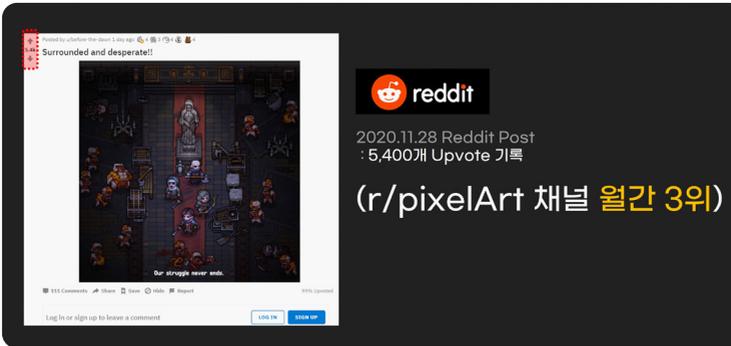
K-Game의 새 지도를 그리는 그날까지

저희가 만드는 [비포 더 던 Before the Dawn] 이란 게임은 아직 출시 전이지만,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릴 만한 소정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각종 인디게임 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20년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 일반부문 출품/유저평점 2위, '21 플레이엑스포 심사작 전체 1위, '21 글로벌 인디게임 제작 경진대회 (GIGDC) 금상 (2위) 수상), 타깃시장인 북미/유럽 시장에서 게임아트워크를 Reddit(레딧) 커뮤니티를 통해 포스트('20)한 결과 5400개의 '좋아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레딧/픽셀아트 채널 월간 3위의 성적으로 글로벌 유명 스팀 게임들이 초기에 보인 유저 관심도 이상의 반응입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토타입의 성과를 눈여겨본 대형 게임사 퍼블리셔에서 퍼블리싱 제안을 해왔고, 그중 W사와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디게임 [비포 더 던]으로 세계 시장에 존재감 있는 출시표를 던질 수 있을까? 내년 출시를 앞두고 저희는 기대감과 두려움으로 매일 최선을 다해 게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북미/유럽시장에서 게임플레이들이 주목할 만한 게임으로 K-인디게임으로서 새 지도를 그리는 그 날까지, 저희의 항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04. 우수상 - K-Game의 새 지도를 그리는 그날까지



큰 꿈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꿈을 순환시키는 <스튜디오 공작소>

처음 회사를 창립할 때, 저희 창립 멤버들이 꿈꾸는 것은 ‘제작자가 꿈꾸는 것을 실현할 소규모 인디 스튜디오 집합체의 회사’였습니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게임 대신, 자신의 창조성을 빛나게 표현할 수 있는 스튜디오들을 지원해주는 회사, 그것이 저희 블랙앵커의 비전입니다. 국고지원금이 저희의 첫 순풍이 되어 배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저희는 작은 꿈을 키워 나가는 게임 제작자들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하는 제작사가 되고 싶습니다.

국고지원금이 저희의 밑알이 되어 열매를 맺어 가듯, 그 열매를 활짝 피운 저희는 더 큰 꿈을 지원하여 K-인디게임이 뻗어 나가게 하려 합니다. 국고 지원금으로 키워 나간 꿈이, 더 크게 열매 맺어 다른 게임 공작소들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갈 예정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단순히 우리 회사의 1년, 2년을 버티게 해준 버팀목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국고보조금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 큰 열매가 다시 좋은 씨앗이 되어 국산 인디게임 제작 생태계에 꼭 필요한 시발점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큰 꿈, 이를 뒷받침해주었던 국고보조금에 저희는 큰 책임을 느끼며, 이 큰 꿈과 큰 책임의 열매와 씨앗으로 순환하여 10여년 후에는 열매로 가득한 과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5

우수상

황민구 (한국해양대 산업협력단)

처음 접한 e나라,
든든한 e나라







처음 접한 e나라, 든든한 e나라

우수상 : 황민구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



2021년 나는 입사한 지 이제 3년차로, 이해가 느린 탓에 이제야 겨우 제 할 일을 해내던 신입 아닌 신입이었다. 그런 나에게 부장님은 갑자기 예산·회계 관리를 올해부터 해보라고 했다. 자체적으로 구축 사용하는 ERP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까지 새로 배워서 사용해야 했으니 첩첩산중이었다. 다시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는 마음으로 일을 배워야만 했다.

다행히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경험치가 쌓였는지 예산·회계 관리 업무를 배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ERP 시스템도 간단했고 e나라도움은 상세 매뉴얼이 탑재되어 있어서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막 사회에 내디딘 나에게 가장 큰 부담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3억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처리할 줄은 알았지만, 감당할 마음이 내게는 없었다.

예산·회계를 담당하면서 내 신경은 항상 곤두서 있었다. 자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에게 3억짜리 실수는 용납되지 않을 것 같았다. 핸드폰을 통해 웹 뉴스를 보거나, TV를 틀어 뉴스를 듣고 있으면 죄다 횡령에 관한 이야기, 부정 집행에 관한 이야기만 들렸고, '체포, 구속, 영장청구' 등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단어가 한 걸음 한걸음 다가오듯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요동쳤다. 더는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둘러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나에게 변화로 찾아온 것은 2022년부터 우리 사업에도 도입된 예치형 e나라도움이었다. 기존에 이미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는 형태인 비예치형은 매년 사업 종료 후에 실시하는 전담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 정산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꼼꼼히 서류를 뒤척이며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려는 회계사님의 모습에 진땀이 나서 어질했던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예치형은 달랐다. 집행 전에 자료를 탑재, 승인은 물론이거니와 집행 후 최소 월 1회 이상 전담 회계법인에서 집행내용을 점검해주는 것은 나에게서는 큰 위로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홀로 외출을 타고 있던 서늘한 허공 아래 e나라도움이라는 그물망이 생긴 것이다.

마음의 변화는 내 삶에도 큰 변화로 찾아왔다. 이제 웹 뉴스나 TV를 보아도 두려움이 앞서지 않았다. 삶에도 여유가 생겨 주변에서도 성격 좋아졌다고들 말한다. 나를 진땀 흘리게 했던 회계사님은 예치형으로 바뀌면서 자주 통화하게 되었고, 이제는 내 아군이라는 점을 나는 안다. e나라도움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평생을 몰랐을 사실이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모두 e나라도움으로 편입되면서 주변에서도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내 지인 중에서도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절차에 칭찬보

다는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만 하다. 내가 느끼는 e나라도움은 친근함인데, 그들에게는 낯섭인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e나라도움이 친구가 된 사연을 소개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이 마음을 e나라도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06

우수상
최소영 (경성대학교)

마동석 같은 e나라도움







마동석 같은 e나라도움

우수상 : 최소영 (경성대학교)

첫인상은 무섭지만, 계속 보다보면 매력동이 마동석 같은 e나라도움!

오늘은 나와 e나라도움이 1년하고도 3개월 동안 함께한 날이다. 약 1년 전, “대학일자리센터”라는 6억 규모의 국고사업을 운영하는 팀으로 발령이 나면서 e나라도움과 만나게 되었다. 그때 당시 국고 사업 운영도 처음이었고, e나라도움도 처음이었다. 인수인계를 해준 선임이 e나라도움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때부터 e나라도움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다. 메뉴도 너무 많고 복잡하고 매뉴얼도 너무 두꺼웠다.

e나라도움에 접속할 때마다 무슨 버튼을 눌러서 혹여나 국고사업비를 잘못 집행할까봐 항상 노심초사였다. 그때마다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 곳이 ‘e나라도움 상담센터’ 서비스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질문을 들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횡설수설 그 자체. 무엇을 모르는지 알지 못해서 질문을 하는 나조차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질문에 찰떡같은 대답을 해주신 상담원 덕분에 아무런 문제없이 e나라도움으로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e나라도움에 조금 익숙해질 때 즈음, 궁금증이 생길 때 상담센터에 전화하기 전에 두꺼운 매뉴얼북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다. 두꺼워서 쳐다보기도 싫었던 매뉴얼북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계 하나하나별로 캡처를 해서 설명을 해놓았는지”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유용한 자료였다. 덕분에 나는 처음 국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유관기관 주무관님께 칭찬을 받으며 사업 마무리, 공시까지 완료하였다.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온라인 e나라도움 교육을 이수하고, 상담 원본의 설명과 e나라도움 매뉴얼을 발췌해서 내 나름대로 정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대학 내 다른 부서에서 e나라도움 이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1차적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제2의 e나라도움 상담원’이 되어 활동 중이다.

[1] 신규가입자 등록후 사업 등록하는 방법

1. 공통관리 > 사용자관리관리 > 기관원관리: 권한
2.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변경신청 > 사업변경
3. 대상목록 중 해당사업 클릭(1번) 후 오른쪽 상단 "담당자 변경"

[2] 사업 약정(내용) 변경에 따른 e나라도움 내 예산 변경 방법

※ 관련 문헌

- 1) 취업지원팀-107(2022.01.19.) [경성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약정(내용) 변경 신청서 제출
-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총괄과640(2022.01.20.) 2021년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예산 변경 승인 알림

1.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변경신청에 들어간다
2. "사업기본정보"에서 변경사유를 입력한다. (변경사유: 세부 예산 집행계획 변경)
3. "예산집행계획"에서 아래 체크 부분을 변경한다.

4. "파일첨부"에서 부산서 승인 공문을 첨부한다

5. "신청서제출"에서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집행행금액을 취소하는 방법

0. 이것을 하는 이유

- 1) 단순 집행 오류
- 2) 미리 돈을 청구받았는데, 잔액이 발생한 경우

1. 집행장산 > 집행취소관리 > 보조금집행취소 > 보조금 집행취소(반납) 등록
2. 해당 자료를 검색한다. (집행용도란에서 내용 검색)
3. 집행취소등록(부분취소가능)을 누른다

또한,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할 때에는 경고창을 띄우며, 국고 사업을 허투루 쓰지 않게 도와주었다.

그리고 국고를 집행할 때에도 전자계산서 연계, 돈을 이체해야 하는 곳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확인이 즉시 가능하고, e나라도움에 등록된 카드 사용 내역도 바로 바로 확인 가능하여 돈이 집행되어야 하는 곳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똑똑하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음을 항상 느낀다.

e블리, e나라도움 수기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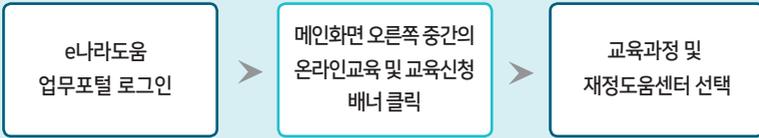
e나라도움의 홈페이지 주소는 “gosims”로 시작한다. 이 url의 의미는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국고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의) ‘고심들’을 담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고심들은 e나라도움이 실시하는 다양한 이벤트들과 교육, 홈페이지 리뉴얼 등 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한 고심들 덕분에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나는, 이렇게 발전된 시스템을 만드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진다.

[편집자 주]

gosims : **G**overnment **S**ubsidies **I**ntegration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의미함

e나라도움 교육신청 안내



권역별 재정도움센터 운영

- 1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진행
- 2 정보 취약층 우선지원 대상 선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3 장애인 보조사업자 대상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
- 4 도서·벽지 보조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 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사전 예방 활동 및 현장점검 지원



- 서울 본원 02)6312-8404
- 광주재정도움센터 062)368-8405
- 부산재정도움센터 051)466-8405
- 대전재정도움센터 042)221-8405
- 대구재정도움센터 053)427-8405
- 강릉재정도움센터 033)641-8405

"보여줄게 달라진 나의 삶!"

2022 e나라도움

체험수기 모음집



발행처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홈페이지 <https://www.gosims.go.kr>

e나라도움 상담문의 1670-9595 (국고국고)

* 발행처의 허락없이 무단전재 및 발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